

4차 산업혁명시대 무역인력양성 방향과 전략에 관한 연구*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The Direction & Strategy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Global Business Practis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on-Gil Cho^a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Namseou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02 August 2019, Revised 18 August 2019, Accepted 21 August 2019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trade issues and curriculum issues of universit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ith the aim of find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curriculum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to cultivate trade manpower by matching them with the trade job competencies required by trade enterprises. To this end, trade college students, GTEP partners, industry-academia partners, and expert groups of N university were ask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rade curriculum for the current curriculum. The resulting data were analyzed by questionnaire frequency analysis and FGI method to reveal that both students and graduates are interested in improving the trade curriculum of the university, and that companies are also demanding talent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comprehensive process of trade practice and can perform sincerely and comprehensively. Therefore, we have established a new curriculum that is suitable for the 4th industrial age, opened a certificate acquisition course suitable for the needs of the company, and developed the commercial practice, trade simulation, capstone design, and PBL teaching method. Ways are suggesting to reduce mismatch between universities and companies.

Keywords: Big Data Curriculum, Curriculum,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raining of Trade Manpower, Trade Manpower

JEL Classifications: F10, F13

*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the 2018 Namseoul University

^a First Author, E-mail: wgcho@nsu.ac.kr

© 2019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최근 국경 없는 온·오프라인 글로벌시장 규모의 확대와 수출입의 다변화, 미중 무역전쟁,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거래대상이 다양화되고 무역업무에 있어 단순 상품판매의 수출입업무에서 벗어나 복잡적이며 전문화된 무역업무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관·직구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른 복합 무역형태로서 관광, 의료, 문화 등 틈새산업의 발전과 서비스와 기술무역이 확대되면서 과거 제조업 중심의 무역에서 융복합 무역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그리고 경제·사회 영역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경제 저성장, 세계화의 가속과 신보호 무역주의의 등장은 무역과 산업 전반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무관해 보이는 중후장대 산업도 3~4년 이내에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적용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별 기업의 대응은 단순한 생산방식 변화나 업무효율 향상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을 통한 가치 창출로 연결되고 있다(Cho Sang-Sik, 2016). 즉,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드론, 3D 프린팅, 유전공학 및 바이오 기술 등의 신기술에 의해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의 대두와 무역에서의 필요한 역량, 직무가 크게 변화하여야 하고 여러 산업군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국내 대학에서 무역학의 교육과정도 현실성을 감안한 적절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무역기업들이 현업에서 보다 실제적인 인력수급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대학에서는 필요역량을 훈련하여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도록 경쟁력과 체계성을 갖춘 교과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기업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무역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새로운 방법으로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기업의 니즈에 부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순환적인 체계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대학의 무역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많은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으며, 1960년대 초 무역학이 대학에서 설립되고 이후 1970년대 수출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수출드라이브 정책 일환으로 무역학이 현실 응용학문으로 독립 발전을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WTO 출범과 세계화, 신보호무역주의 재등장으로 통상극복 차원의 국제통상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국제통상 전공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응용학문으로서의 무역학과 국제통상학이라는 학문간 개념적 차이를 행위주체, 목적, 활동과 영역에서 볼 때 무역이 개별경제 주체와 기업의 이익, 국제거래, 개인 기업경제의 경영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국제통상은 국제기구, 국가의 공공이익, 국제간 상거래 제약요인 완화, 국가측면의 경제활동이라는 공적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Ji Sung-Pyu, 1999). 또한 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략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기존 경제이론에서 다루지 않는 통상규범과 국제기구 등의 제도와 규범적인 측면이 심화되었다(Ahn Duk-Gun, 2107).

이러한 흐름에서 학문적 위상을 세우기 위하여 2000년대 전후부터 현재까지 대학의 교과과정과 무역현장간의 괴리에 대한 학술적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역인력 수급 불일치로서 교육기관의 교육체계상 문제점으로 무역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재 부족과 이론중심의 교과과정에 대한 지적과 무역기업들이 부문별로 특화된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 기능과 마케팅감각 갖춘 실무형 인력 요구를 들고 있다(Han Young-Su, 2003). 또한 무역인력 역량 기대불일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결과에서도 인력수요기관의 기업규모를 고려한 차등적인 무역인력양성 체계 수립과 산업현장에 맞는 무역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산학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Kim Hag-Min, Lee Ho-Hyung and Lee Hong-Ki, 2008). 그리고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고용규모가 클수록 수출업체 무역인력 수요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

을 갖춘 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KITA, 2018).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새로운 가치 창출과 창의적 무역인력양성을 위해 전공 학문 간의 다양한 연결로서 융복합적인 무역학의 교과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융복합 무역학전공으로서 4차산업 혁명시대에 주도하는 기술로서 빅데이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이수하는 과학기술분야와 통계적인 분석방법, 다양화된 마케팅 채널을 익힐 수 있는 무역마케팅, 무역관련 법·제도, 원산지실무, 전자상거래의 세밀한 부분까지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까지 진행하는 무역인력이 양성되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산업사회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쉽게 수치화할 수 있는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이 경쟁의 핵심 요소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경쟁력이 될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기계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창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미 고려대는 2019년 2학기부터 기술창업 융합전공(Technology Entrepreneurship)을 신설하고 공대의 7개 학부와 학과, 경영대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등 총 9개 학부와 학과가 참여하는 벤처 경영 등 창업관련 교과목과 데이터 분석 및 기술사업화 등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일자리 창출을 넘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Donga ilbo, 2019.7.16. No.30451, ⑤, C2).

따라서 무역인력양성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대학의 무역 교육과 기업의 요구 분석을 통하여 무역인력 양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하지만 과거 10년 동안 세부적인 항목의 변화는 있지만 거시적인 방향성은 대동소이한 측면이 많은 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력양성과 관련된 각종 연구에서 제시된 교육의 방향과 무역 인력양성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 전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대학의 무역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과 현재 무역업계가 요구하는 실

무형 무역전문인력양성의 전략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 내 무역학 교과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들과 GTEP 협력업체, 산학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설문지를 활용하여 교과과정의 만족도, 현업기업의 요구 역량과 개설희망 교과목, 현재 교과과정에서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내용과 방향, 무역학의 전반적인 개편내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무역인력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인력 양성의 개요

제4차 산업혁명은 CPS,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3D 프린팅, 생명공학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세계 모든 사물들의 기능화와 초연결(hyper connection)을 지향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독일 정부 정책인 '산업 4.0(Industry 4.0)'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는 단계를 의미했으나,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되면서 ICT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Cho Nan-Shim, 2017).

4차 산업혁명이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생산기기와 제품 간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구축하는 산업혁명을 말한다. 한편 다보스포럼(2016)에서는 이를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라 정의하였으며, 사전적으로는 제조기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현대사회 전반의 자동화를 총칭하는 것으로 CPS(Cyber Physical System: 가상물리시스템)와 IoT, 인터넷 서비스 등의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Lee Byung-Moon, Chung Hee-Jin, Park Kwang-So, 2017).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물리학기술, 디지털

Table 1. Levels of Response by Company Size

Levels of Response		Total	Large Compani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sponding or Preparing	Already in action	13.2%	38.5%	11.7%
	Two years in preparation	30.2%	38.5%	29.7%
Monitoring or No Planning	Long term monitoring	54.0%	15.4%	56.3%
	Not interested	2.6%	7.7%	2.3%

Sourc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2017.9.26).

기술, 생물학기술 등 각 분야의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다보스포럼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기술은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있다(KOTRA, 2016).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이 미치는 영향은 생산방식에 있어 소품종 다량생산품목 위주였으나 유연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의 교역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거래방식에 있어서 오프라인 위주의 물류 주도에서 사물인터넷에 따른 디지털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기존 제조업 위주의 무역거래에서 비교우위 원천인 자본과 노동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국제 무역이 이루어졌으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서비스무역의 확대와 로케이션이 비교우위 원천으로 부각되며 제품수명주기에 따라 빠른 변화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이 확산되면 제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치사슬에 있어 기존 생산과 조립단계의 가치사슬 주도, 생산과정의 국제분업에서의 스마트일커브, 생산과정의 복합된 구조에서 제조업 무역은 고용창출에 기여한 반면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서비스무역에 따른 고용유발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더불어 2018~2020년에는 첨단 로봇공학과 자율주행차량,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첨단소재, 생명공학기술과 유전체학(genomics)분야가 신성장산업의 주류를 형성할 것이다(Moon Byeong-Gi,

2017). 상당수 신기술들은 이미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구단계에 머문 기술들을 본격화하면서 산업현장에 적용할 것이며 네트워크와 컴퓨터 처리능력의 향상에 따른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 무역관점에서는 개인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반면 신기술접목 이후에는 분야별 맞춤형 무역업자 또는 소비자 요구형 코디네이팅 무역을 예상하고 있다(Lee Ho-Gun, 2018).

4차 산업혁명은 ‘기술간 초연결성’이므로 일련의 생산 프로그램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실행되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즉, 플랫폼의 구축으로 다양한 제품·서비스가 결합되어 장기간 경쟁우위 지속이 가능한 ‘스마트팩토리’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대체 가능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플랫폼 선점에 대한 경쟁은 심화 될 것이다.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개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인의 개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 된다. 특히 생산과 유통에까지 윈스톱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I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경제에 대한 의존이 더욱 강화된다. 플랫폼의 구축은 거래비용 감소, 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과 반응,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거리와 국경의 개념이 약화되고 실시간 정보교류와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KITA IIT, 2016).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무역업계의 대응 준비는 오히려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2017.9.26.).

Table 2. Transition of Trade Manpower Development Paradigm

Detailed Factors	Past	Today	Future
Functional	Trade Practice	Practical, Commercial, Regional, Entrepreneurial	Convergent Human Resources
Region	Export Major Countries (USA, Japan, China)	Major Exporting Countries, FTA Countries, Emerging Market Countries	Convergence Regional Experts (Industry + Technology + Products + Investment + Local Experts)
Training Institution	Educational Institu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overseas companies	Multiple Institutions
Creativity	Usually	Middle	High Level
Entrepreneurial Spirit	Low	Increase	Very High
Core Competence	Communication Capacity Working Capacity Global Capability	Asset Specificity Communication Capacity Industrial Technology Capability Local Market Capability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Integrated Competenc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Communication Capacity Leadership Competency Trade Negotiation Capability
Trade Diversity Expertise	Limited to Product Area	Expansion into Products, Services and Investment	Specialize in Products, Services, Investments, Intellectual Property, Technology Barriers, etc.
How to Train	Basic Knowledge (One Direction)	Basic Knowledge, Experience Type, Practical Type, Comprehensive Type, etc.	Convergence, Capstone Design

Source: Kim Hag-Min, Lee Yerim(2016).

〈Table 1〉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업체들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38.5%가 이미 대응중이거나 2년 내 대응을 위해 준비 중이며, 중소기업은 11.7%가 이미 대응 중이거나 29.7%가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기업 규모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장기간 모니터링을 하는 기업은 대기업이 15.4%, 중소기업 56.3%로 나타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및 준비수준은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해 제품이나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여 부가가치 창출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다. 1차적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이나 소비자 변화를 예측, 제품개발(신제품 출시 및 신비즈니스모델개발)에 반영하는 노력하거나 마케팅전략 도입과 관련한 인재확보와 양성에 전력할 필요가 있다. 2차적으로 기술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 고도화나 서로 다른 업종간 결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써 제품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2. 4차 산업혁명과 무역인력양성의 패러다임 변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복합의 무역인력은 무역이 지니고 있는 산업적, 지역적, 기능적 개별 특성들이 결합한 융복합적 대상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한다. 즉, 자동차와 무역을 결합한 자동차 무역, 전자상거래의 수출입을 결합한 전자상거래무역 등 다양하게 융복합적 현상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Kim Hag-Min, Lee Yerim, 2016).

이러한 융복합 무역인력의 특징은 <Table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종합화, 사업화, 의사소통, 리더십, 통상협상 등의 분야로 구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인력 양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와 연관된 미스매치 문제이다.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성숙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국가경제를 주도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무역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즉, 자동화·정보화의 진전으로 특별한 지식·경험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인력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분야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거 무역인력의 양성은 무역실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으나 세계화, 지역화, 디지털화, 경제통합화의 진전으로 무역의 범위와 형태는 변화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무역인력 양성의 패러다임도 바뀌게 되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은 기계,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어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다품종 적량생산이 가능한 제조업 패러다임의 진화를 가져오며 그로 인해 제조업의 가치도 '노동과 효율' 중심에서 '아이디어와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여 지식재산의 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Lee Sung-Gi, 2016)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2018)자료에 의하면 산업법 전문인력 2684명, 지역 연구인력 2463명, 에너지 전문인력 1,500명, 무역 전문인력 1280명, FTA 전문인력 150명 등 전문

성을 갖춘 산업전문인력 8000여명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우리의 무역인재 양성전략도 새로운 틀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무역인력양성 전략은 산업발전 단계별로 변화를 거쳐왔다.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무역실무와 함께 의사소통에 주안점을 둔 외국어 능력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제조업이 수출주력 산업이 된 이후에는 해당 산업과 제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요건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IT 제품이 수출주력품목이 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융합형 무역인재 양성은 무역실무와 마케팅 능력뿐 아니라 시대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 프레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시점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무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융합형 무역인력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3. 무역학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1) 무역학 교과과정 제반 문제

2010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이에 따라 기존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의 변화가 일면서 국내 교육에서도 소프트웨어교육이 모든 학생을 적용 진행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코딩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전공에 무관하게 2020년 대학을 진학할 경우 이론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 대한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Lee Ho-Gun, 2018).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 지방대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학사지도제 도입과 학사지도 교과목 적용과 학업성취도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과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Kim Ji-Yong and Kang Sung-Bae, 2016).

무역교육에 있어 무역전문가와 통상인력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 교과과정은 국제경영과 국제경제 중심인 반면 무역업체들이 요구하는 전자무역 전문인력양성과는 산학

간 의견차이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시뮬레이션 교육수강에 있어 학습성취와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 이론적인 프로세스 중심에서 벗어나 가급적 학습효과와 관심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Lee Sang-jin and Kim Hyung-Cheol, 2013).

대학의 학과 통폐합으로 무역학의 독립적인 지위 상실과 이러한 위기 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및 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무역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대학 교과과정의 분석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무역학 교육과정과 학문분류의 재정립방안을 제시하였다(La Kong-Woo, 2011).

대학에서의 무역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부의 교과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고 대학교원의 양성과 임용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분석하였다. 4년제 대학에서 무역교육을 담당할 대학교원에 대한 구인동향을 분석하여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과 임용에 대한 학문적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분석은 빈도(frequency)를 계산하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 측면에서 하이브레인넷(Hibrain.net)을 분석대상으로 교수를 비롯한 고급인력에 대한 채용정보, 연구지원 정보, 해외연수, 대학정보, 학술포럼, 브레인카페, 브레인뉴스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Kim Jai-Sik, 2012).

국제상학과 전자무역의 학문적 연계성을 Lakatos(1978)의 과학연구프로그램 진화개념을 국제상학에 적용하고, 이론은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존재일 경우 국제상학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변화할 것으로 제시하였다(Chung Yong-Kyun, 2009).

2)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

우리나라 무역학과가 개설된 이후 1990년대 후반에 학부제가 시행됨으로 인해 무역학의 정체성 및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 중에서 무역학 교과과정의 개편 방향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Hong Seong-kyu(2004)는 일본의 무역교육에 대한 대학의 운영현황과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한국무역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무역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Yoon Chung-Weon, Liu Zuan-Kuo(2008)는 국내대학의 무역학과 교과과정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과목과 학과 명칭과 관련하여 Kim Wuen-bae(2005)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무역실무의 강화와 교과목 확충 및 학과 명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외국대학과의 교과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Kim Wuen-bae, You Byoung-boo(2006)는 일본대학의 무역학 교육에 대한 비교분석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무역교육 방향을 모색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Hahn Jaephil(2005)은 영국 법과대학원과 우리나라 대학의 무역학과 교과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국제상학의 정체성 확립과 교과 과정을 개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맞추어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 등이 고려된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방향을 제시되고 있는데, 학과 명칭과 교과과정 일치율을 통한 분야별(글로벌무역전문가, 국제마케팅전문가, 통상전문가, 서비스무역전문가, 운송·물류전문가, 전자무역전문가, 지역특화를 위한 무역전문가) 특성화와 전문화 강화, 기본교육수행과 인접학문 또는 관련학과 연계 적합심화교육 제시하고 있다(Park Kwang-So and Yu Kwang-Hyun, 2008).

교육과정상의 기업수요에 적합한 현장중심 실습교육 강화, 학과명칭에 맞는 교과목 개설, 그리고 전자무역 분쟁해결능력 신설, 학문분류 체계상의 무역명칭을 무역상무 또는 국제상학으로 변경, 분류되지 않는 무역보험 세분화, 그리고 무역법규 재분류를 제안하고 있다(La Kong-Woo, 2011).

또한 우수한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요원으로 선발되지 못한 무역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미경험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산학협력친화형 무역교과목으로 전자무역학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교과목 운영을 통한 제안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과 산학협력 기업 섭외 후 수출마케팅 캐릭터상품 프로세스와 전자무역 활용현황 분석 등 현장이론 중심 강의

통한 시장조사보고서, 활용전략보고서, 모형제작 교육사례를 들고 있다(Lee Ho-Hyung and Yang Gum-Woo, 2013).

Ⅲ. 무역학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조사 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현재 대학의 무역학 교과과정의 개선방향과 전략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의 글로벌무역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및 GTEP 협력업체, 산학협력체결업체¹⁾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학생은 전공선택 동기, 졸업 후 진출희망분야, 현 교과과정과 전공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응답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산업체는 직무별(해외영업, 무역금융, 운송물류, 원산지관리, 수출입관리, e비즈니스) 기업이 판단하는 중요도와 대학 교육정도, 교육기관의 중점 교육비중, 수업방식유형,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무역학전공학생과 무역관련 기업 간의 미스매칭을 조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과과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방법

설문조사방법은 구글 설문지와 이메일을 활

용하였으며, 응답경로는 데스크탑 컴퓨터, 스마트폰/태블릿이며 응답률 기준은 전체응답자이다. 데이터 수집기간은 2019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진행되었고 면접조사를 위하여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조사 분석은 대학 교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트라 설문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접근이 쉬운 형태를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 학생은 전공교과과정 이수여부에 따라 무역학과 전공과목을 이수 한 학생이거나 이수중에 있는 재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와 전공연계 프로그램 만족도 그리고 현재 교과과정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전공을 이수하고 졸업을 한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 분석대상 기업의 선정은 국내사업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GTEP 협력업체 및 산학협력업체를 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하였다. 이들 업체들을 선정한 이유는 무역업을 직접 우리대학과 진행하면서 지원을 한 업체이며, 재학생들의 인턴체험과 현장실습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업체들이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교과과정 이수한 후 학생들의 취업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 조사 분석결과

1) 재학생

〈Table 3〉은 재학생들이 전체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수는 92명이며 설문을 완료한 응답자는 59명으로 응답률이 64.13%이다. 응답경로는 데스크탑 이메일이 16명, 스마트폰/태블릿의 구글 설문지가 43명으로 나타난다. 먼저 무역학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는 고교 성적(수능)에 맞추어서 24명(40.66%), 전공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함이 21명(35.59%),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 17명(28.81%), 주위 가족, 친구 등의 권유 12명(20.34%), 전공에 대한 안내를 듣고 마음에 들어서 10명(16.95%) 순으로 나타나 대학전공 선택에 있어 성적이 우선되어 전공을 선택하는

1) 2015년 1월 1일 이전 중소기업 기준이 사원수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원 이하였으나 조세특례범령이 개정(2015.6.30.)되면서 평균매출액 규모만을 적용한다(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400억원 이하에서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은 3년간 매출액 합을 3으로 나누며 여러 업종이면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되며 자산총액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1982년 도입된 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로 따졌으며 상시 근로자 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이면 소기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같은 제조업이라도 식료품 제조업과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은 3년 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된다.

Table 3. Reasons for Selecting a Major in Trade and Field of Employment Hope

Reasons	Frequency	Percent	Field of employment Hope(1st Place)	Frequency	Percent
In Line with High School Grades	24	40.68	General Trading Company(Overseas Business)	25	42.37
To become an Expert in Field	21	35.59	General Company(Planning Domestic Business)	9	15.25
Ease of Employment	17	28.81	Public Institution(Kotr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6	10.17
Suggested by Family or Friends	12	20.34	Overseas Employment	4	6.78
Major Introduction	10	16.95	A multinational Corporation	3	5.08
Fit for a Aptitude	5	8.47			
Etc	1	1.69	Trade Establishment	1	1.69

Table 4. Current Curriculum Improvements and Urgent Curriculum Improvement

Current	Frequency	Percent	Urgent	Frequency	Percent
Enlarge the Qualification-Oriented Major	35	59.32	Personal effort	22	37.29
Various Practical Training and Internship Experience Support	34	57.63	Expansion of Employment Support System	10	16.95
			Strengthen Field-Oriented Education	9	15.25%
Hope to Receive Courses Linked to Actual Field	30	50.85	Course Contents	6	10.17
After Graduation, Opened a Practical Field Course	19	32.2	Faculty Capacity	6	10.17
Hope to Acquire Various Basic Literacy Courses	4	6.78	Acquire Prof	6	10.17

기준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희망전공을 통하여 실력을 배양하겠다는 것이고 차이가 다소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졸업 후 진출희망 분야를 묻는 질문을 순위별로 묻는 질문에 있어 1순위를 살펴보면 일반 무역업체(수출입일반, 해외영업 등)가 25

명(43.37%), 일반기업(기획,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내 영업)이 9명(15.25%),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의 공사가 6명(10.17%), 물류(철도, 해운, 항공, 일반운수)가 3명(5.08%)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물류, 일반기업, 공공기관 순이다.

Table 5. Reasons for Selecting a Major in Trade and Type of Work After Graduation

Reasons	Frequency	Percent	type of work	Frequency	Percent
Help with Employment	24	63.2	General Trading Company	14	36.8
Specialized Fields	9	23.7	Public Trade Institutions	9	23.7
Suggested by Family or Friends	5	13.2	Logistics	5	13.2
			General Company	5	13.2
			Financial Companies	5	13.2
Total	38	100	Total	38	100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전공이수 이후 일반 무역업체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자격증 중심으로 더 깊이 있는 전공 이수 희망이 35명(59.32%), 실습 교육 및 인턴, 현장체험 지원 등의 다양한 실습프로그램 참여 희망이 34명(57.63%), 실제로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과목 이수 희망이 30명(50.85%), 자격증 이외 졸업 후 진출 분야에 필요한 과목 이수 희망이 19명(32.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4>는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문에 대한 질문에서 개인의 노력 22명(37.29%), 취업지원제도 확충 10명(16.95%),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가 9명(15.25%),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수진 수업 역량 및 관련 교수진 확보가 각각 6명으로 나타났다. 전공 이수과정을 거치면서 학생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취업에 필요한 자격요건 구비에 필요한 교육기관의 현장 실무형 교과과정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대학기관에서 학생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학생생활 상담센터에서 교과연계 및 개별상담 프로그램 참여가 14명(23.73%), 취업 및 창업지원처(저학년 진로탐색, 고학년 취업프로그램) 참여에 9명(15.25%), 사회봉사지원센터(교과연계 봉사프로그램) 참여 6명(10.17%)순으로 입학 초부터 취업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열의에 있어 대학기관에서 학생들의 역량개발

을 위해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 만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보통 38명(64.41%), 만족 12명(20.34%), 불만족 5명(8.47%), 매우 만족 3명(5.08%), 매우 불만족이 1명(1.69%)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개설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으로 향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서도 취·창업지원처의 저학년 진로탐색, 고학년 취업프로그램과 외국어교육원의 교과연계 공인어학성적증명에 대한 참여 의사가 각각 22명(37.29%), 18명(30.51%)로 나타나 대학 교과과정 이수에 있어 전공 성적 획득에 투입하는 노력과 실제 어학능력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졸업생

졸업생들이 설문문에 참여한 학생 수는 87명이며, 설문을 완료한 학생은 38명으로 응답률은 43.67%인데 응답률이 낮은 이유는 현재 취업 중에 있는 졸업생이거나 3년 미만 재직기간 중 이직 등의 여러 사유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지만 전공연계 직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졸업생들이 설문문에 응답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Table 5>에서 졸업생들의 업종은 제조업이 15명(39.5%), 무역업이 10명(26.3%), 유통 9명(23.7%), 컨설팅 4명(10.5%)이며 남자 28명(73.7%), 여자 10명(26.3%)로 나타난다.

졸업생들도 재학생들과 유사한 응답결과가

Table 6. Current University Curriculum Improvements and Urgent Improvements to Enhance Major Specialty

Current	Frequency	Percent	Urgent	Frequency	Percent
Certificate-Based Curriculum Hope to Get Deepened Curriculum Related to Actual Field	28	73.7	Curriculum Content Needs Improvement	20	52.6
	10	26.3	Personal Effort	18	47.4
Total	38	100	Total	38	100
			Contents of Course That is not in Field Practice	33	86.8

Table 7. Need to Organize English Course and Strengthen Excel Statistics

English courses	Frequency	Percent	excel statistics	Frequency	Percent
Not very	20	52.6	Very	19	50.0
Not	13	34.2	Yes	14	36.8
Yes	5	13.2	Not very	5	13.2
Total	38	100	Total	38	100

나왔는데 무역학 전공을 선택한 동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가 24명(63.2%)나 나타나 취업과 연계 가능한 전공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졸업 후 근무 중인 업체유형은 일반무역업체(수출입업체 해외영업 등) 14명(36.8%), 공공기관이 9명(23.7%)로 나타났으며, 물류, 일반 기업에서의 기획,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내 영업, 금융업체 근무가 각각 5명으로 나타났다. 재학시절과 졸업 이후 현재 대학기관의 무역학 교과과정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자격증과목 중심의 보다 깊이 있는 전공이수를 희망(73.7%)하고, 실제 현장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깊이 있는 교과목 이수를 상당히 높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전공 교과목 이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당수로 나타나 이론적인 교과목 운영을 지양하고 교과과정 이수학생들이 전공 연계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지속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Table 6〉에서 전공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사항에 있어서도 학생 자신의 노력도 상당부분 요구되지만(18

명, 47.4%) 현장중심의 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과과정 내용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응답(20명, 52.6%)한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교과과정이 현장내용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33명, 86.8%)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학생들이 공감하고 있는 어학을 충분히 익히도록 영어강좌 교과과정 편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졸업생들의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 20명(52.6%), 그렇지 않다 13명(34.2%), 그렇다 5명(13.2%)로 나타나 재학생들과는 매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영어의 사용부분이 국한된 업무에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Table 7〉에서 전공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시장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엑셀 등 통계분야 강화는 매우 그렇다 19명(50.0%), 그렇다 14명(36.8%), 매우 그렇지 않다 5명(13.2%)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현장에서 업무에 활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통상 실습 등 현장중심 교과과정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13명(34.2%), 보통 10명(26.3%), 매우 그렇

Table 8. Need to Develop Complex Curriculum and Big Data Convergence Curriculum Required

Complex curriculum	Frequency	Percent	convergence	Frequency	Percent
Yes	19	50.0	Moderately	24	63.2
Not	9	23.7	Not	5	13.2
Moderately	5	13.2	Yes	5	13.2
Very	5	13.2	Not very	4	10.5
Total	38	100	Total	38	100

다 10명(26.3%), 매우 그렇지 않다 5명(13.2%)으로 나타났다. 졸업생들도 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론보다는 현장중심의 교과목이 업체 업무를 볼 때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사료되는 부분이다.

또한 <Table 8>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적합한 융복합 교과과정의 개발 필요여부에 대하여는 그렇다 19명 50.0%, 그렇지 않다 9명(23.7%), 보통 5명, 매우 그렇다 5명으로 현 시대에 적합한 신기술을 연계한 전공 교과과정 개발에도 무게를 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빅데이터 등 융복합 교과과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있어 보통 24명(63.2%),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가 각각 5명(13.2%), 매우 그렇지 않다가 4명(10.5%)로 나타나 융복합 교과과정 필요에 대해서도 졸업생들은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 교과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실무에 바로 적용가능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19명(50.0%), 보통 9명(23.7%), 매우 그렇지 않다 5명(13.2%), 매우 그렇다 5명(13.2%)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서 현재 교과과정이 어느 정도는 실무와 연계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바이어 관리에 대한 교과과정은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분이 각각 26.3%, 23.7%, 23.7%로 높게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한 교과과정 강화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의 응답이 각각 39.5%, 26.3%, 23.7%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무역에 대한 교과과정 필요여부는 그렇다 19명 50.0%, 보통 14명 36.8%, 매우그렇지 않다가 5명 13.2%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역마케팅에 대한 교과과정 필요부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13명 34.2%, 그렇다와 보통

이다 라고 응답은 부분은 각각 10명(26.3%), 5명(13.2%)로 나타났으며, 물류 및 기술무역에 대한 교과과정 필요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 23명(60.5%), 보통 10명(26.3%)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시절 학생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개설했던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에서 보통 15명(39.5%), 매우 불만족 13명(34.2%), 만족 10명(26.3%)로 대체로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현재 교과과정 외에 전공과 관련하여 추가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과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전공과목의 개발과 전공심화 과목 필요, 실무관련 체험과목 심화, 저학년 무역시물레이션 과목 개발, 터미널(항구)관련 물류운송과목 추가개발, 빅데이터 관련 과목 개발, 무역실무 강의와 심화는 은퇴하신 분이 아닌 현업 종사하고 계시는 분에게 강의를 듣기를 희망하고 있다.

3) 기업

응답 기업은 GTEP 협력업체 또는 산학협력 제조업체, 무역업체들로서 5인 이하 소기업이 56개사(44.1%), 100인 이상 31개사(24.4%), 11-50인 기업이 24개사(18.9%), 5-10인 미만 기업이 16개사(12.6%)로 나타난다. 조사기간 동안 기업의 매출에 대한 사안은 조사대상 기업 대표자, 실무자들이 꺼려하는 사항으로 조사항목에서 제외할 점도 미리 밝히는 바이다.

기업들에게 현재 대학의 무역학 교과과정과 연계한 해외영업 직무인 해외시장조사, 해외영

Table 9. How Much Overseas Training should be Taught in University

Market research	Frequency	Percent	Overseas prospect	Frequency	Percent
Yes	63	49.6	Very	40	31.5
Not	24	18.9	Not	32	25.2
Not very	24	18.9	Yes	31	24.4
Moderately	16	12.6	Moderately	16	12.6
			Not very	8	6.3
Total	127	100	Total	127	100

업 상품분석, 해외잠재고객 발굴, 해외고객 협상, 국제계약 체결, 해외영업 계약이행관리, 해외 클레임 처리, 해외고객(바이어) 관리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해외영업 직무사항이 대학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9)에서 해외시장조사 항목은 그렇다 63개사(49.6%), 그렇지 않다 24개사(18.9%)이며, 해외영업 상품분석은 그렇다 55개사(43.3%), 그렇지 않다 18.9%이며, 해외잠재고객 발굴은 매우 그렇다 40개사 31.5%, 그렇지 않다 32개사 25.2%, 그렇다가 31개사 24.4%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거래 제안에 대한 대학에서 교육은 그렇다 55개사(43.3%), 매우 그렇다 32개사(25.2%)로 나타나 해외거래 제안에 대하여 보다 심화된 교과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해외고객협상도 그렇다 48개사 37.8%, 매우 그렇다 39개사 30.7%로 전체 68.5%로 매우 높은 비중이 있는 직무임을 알 수 있다.

거래제안과 고객협상은 거래상품에 대한 가격 등의 거래조건 협상이 주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화된 교과목 개발이 우선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외클레임처리는 실무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접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례조사와 팀티칭 등의 실제 현장 실무업체와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학생들로 구성된 위기 관리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상법과 민법적인 법무지식 배양을 고려한 법제도 교과과정 개발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무역금융 직무분야인 수출신용장 통지 및 양

도, 무신용장 방식 수출환어음 매입 추심, 수입 신용장 개설, 수입선적 서류 인수결제, 외화지급보증 개설 지급관리,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 등 대학에서의 교육도 모두 긍정적이며 종합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운송관리 직무분야인 항공, 해상, 육상 운송관리, 복합운송관리, 송화물관리, 물류정보시스템 활용에서 그렇다 56개사(44.1%), 보통 40개사(31.5%), 매우 그렇다 23개사(18.1%), 그렇지 않다 8개사(6.3%)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관리 직무에서 수출입통관 실무관리, FTA협정 및 법령관리,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사전 준비에서 그렇다 71개사(55.9%), 매우 그렇다 24개사(18.9%), 그렇지 않다 16개사(12.6%), 보통 16개사(12.6%)로 나타났다. 이에 모든 설문항목에 매우 긍정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수출입관리 직무에 있어 수출입계약, 수출입 운송보험, 수출입위험관리, 수출입마케팅 직무에 있어 56개사(44.1%), 매우 그렇다 47개사(37.0%), 매우 그렇지 않다 8개사(6.3%)로 나타났다. 또한 e비즈니스직무에서 사업기획, 시장환경분석, 기술환경분석, 마케팅관리, 판매관리, 고객관리, 사후관리, 마케팅 성과측정 및 활용도에서 그렇다 71개사(55.9%), 매우 그렇다 40개사(31.5%), 매우 그렇지 않다 8개사(6.3%), 그렇지 않다 8개사(6.3%)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기업들은 업무수행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보통이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대학이 학문 중심적

인 인재공급에 치중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현장 중심의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보다 종합적인 실무 지식과 경험과 실무능력을 구비한 인재들로 양성되어야 기업요구를 충족하는 인재로써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IV. 표적집단면접(FGI)결과에 따른 무역학 교과과정 방향

표적집단면접(FGI)은 기존 설문지를 받으면서 응답한 대표들과 무역관련 전문가들에게 설문지 문항을 주고 받은 내용들이다. 응답자는 대부분은 GTEP 협력업체 또는 산학협력 제조업체, 무역업체, 그리고 산업체 경력을 지닌 산학중점교수들로서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서 받은 내용이다. 응답 기업들은 5인 이하 소기업이 56개사(44.1%), 100인 이상 31개사(24.4%), 11-50인 기업이 24개사(18.9%), 5-10인 미만 기업이 16개사(12.6%)에서 의견을 받은 것으로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이것이 전체 의견을 대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이라도 사료된다.

1. 미래요구 역량과 직무의 변화

전문가 및 산업체 대표들은 오늘날 학생들이 교실에서 교수의 강의를 청취하는 것보다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러닝으로 학습하고 소통하려고 한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장거리 통학문제도 해결하는 측면에서 더 익숙하다. 이에 앞으로는 이러닝도 더욱더 수동적인 강의비디오 시청과 퀴즈 평가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호작용 기능을 갖추어 개인 맞춤형 대량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무역에서 요구하는 미래 역량도 스마트 러닝으로 실현가능하게 될 것이며, 교수가 교실에서 제공하던 강의 서비스는 스마트러닝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것 외에도 스마트러닝 형태로 유튜브 및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통하여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기업들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Feasibility Study능력 배양, 팀티칭을 한번이라도 참가, 참관한 적인 있는 학생,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능력이 있는 인적자원, 학생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게 스스로 달성 해 보는 것, 현장학습, 소통능력, 사회적 자본의 활용기술을 높이는 것, 인성이 좋은 학생으로 실무경험을 지니고, 프로젝트 및 액션러닝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산업체 및 전문가들은 미래에 필요한 인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복잡한 문제를 찾아내고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은 숙련되고 훈련된 인재가 가능하다고 한다. 창의성이 요구되거나 고도의 추론이 필요하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계획하고 문제해결하고, 고도의 사회적 규범 및 가치판단이 필요한 업무 등은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3자의 시선으로 완성시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현재에 구성되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기업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전공 연계 가능한 자격증 취득을 학기 중에 정규 교과목 이수 중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이러닝 사이트를 별도로 운용하거나 자격증 취득반을 특별히 대학에서 지원하여 학과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과 내 자격증 취득 희망 분야 사전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무역 자격증(원산지관리사, 무역영어 등)의 동영상 확보하거나 자격증 취득반 운영에 필요한 학과 내 계시관 관리(자격 공고, 기출문제 발굴 등)에 책임 있고 성실한 학생모집과 재학생들의 자격 취득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의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시대에 부응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학의 부분이 취업을 위해 존재하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다수의 의견도 있다.

2. 현장 실무형 교과과정 심화 방안

전문가들은 대내외 무역환경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신성장동력을 개척해 한국무역을 한 단계 더욱 성장시킬 무역인재는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 라는 질문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형 무역인재는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전문지식과 의사소통능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현장경험이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기반이 되는 것을 감안해 글로벌 무역인턴십 프로그램을 비롯한 해외현장 체험과 통상실습, 무역시뮬레이션, 꾸준한 독서를 통하여 사고의 폭을 넓히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의 한국무역을 이끌어 갈 융합형 무역인재는 디지털 혁신을 새로운 부가가치로 연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업계 대표들은 창의성, 복잡하고 융합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정의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소통, 협업, 리더십 등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 역량은 종래의 일방전달식 강의나 별도의 교과목으로 가르치기 힘들다는 것이다.

캠퍼스라는 플랫폼에 학과를 중심으로 학생과 교수를 모아 놓고 대량의 정보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표준화된 대량교육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통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기술혁신에 따라 과거의 비즈니스, 산업, 직무,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지만 새로운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에 무역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직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재교육과 자기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교과과정의 내용, 수업방식, 교수자의 역할도 이에 맞추어 변화해야 할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업체 대표들은 무역업체는 실무상 거래처발굴에서부터 사후 클레임처리 등 종합적인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규모에 따라 직무가 다르다고 하지만 주문건에 대한 책임 있고 성실한 고객응대와 명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국내 무역업의 특성으로 볼 때 제조업을 영위한 해외영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운송과 물류, 보험 업무는 관련 업체를 통해 진행되지만 해외잠재고객 발굴과 거래제의, 계약체결과 사후관리는 실무업체의 몫인 것이다. 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대학에서 보다 심화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현재 3, 4학년 전공과목에 치중하기 보다는 1학년 2학년까지 내려서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3.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과목 개발방안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인터뷰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무역에 대한 교육이 바뀌어야 미래 무역 주역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넓어진다고 하였다. 교육을 통해 지식을 주입하고 암기하여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전통방식의 무역교육은 더 이상 존립가치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넓은 해외시장을 겨냥하기 위해 창의력과 팀워크 및 대응 능력과 인성을 배양하는 무역교육 등으로 획기적으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앞의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무역업계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무역학 전공자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융복합 전공 교과목 개설을 앞당겨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융합된 교과목을 바탕으로 학습하고 훈련된 인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융합형 무역인재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이겨낼 한국무역의 가장 큰 경쟁력인 무역인력이 되는 것이다. 융복합된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학협력이 충실하게 진행되면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4학년 학생들은 이론중심 교육 보다는 학과 연계 업체를 통해 실습위주 교육이 절실하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캡스톤 디자인, 액션러닝, PBL(프로젝트기반 수업), 팀티칭 순으로 융복합 인재에 맞춘 교과내용이 편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무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역지식을 산학협력 형식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고, PBL수업으로 무역실무 능력의 향상과 빅데이터나 전자상거래 무역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갖춘 교과목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역은 해외비즈니스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래기술에 대한 대응 및 활용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과과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000년대 전후부터 현재까지 대학의 교과과정과 무역학과 교과과정의 개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꾸준히 교과과정을 개편해 왔다. 또한 소통과 협상, 산업계 수요 중심 실무 교육과 같은 교과과정 내용이나, 산학협력 활성화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 오고 있지만 현실에서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무역학의 학문적 위상을 세우기 위하여 무역현장에서 느끼는 인식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학술적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무역인력의 수급 불일치가 크게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교육기관의 교육체계상 문제점과 대내외적인 무역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과과정 개편과 무역기업들이 부문별로 특화된 전문인력을 요구 부분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미래요구 역량과 직무의 변화와 현장 실무형 교과과정 심화 방안,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과목 개발방안이라는 부분에서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산업계의 의견을 설문조사방법으로 빈도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FGI방법으로 전문가들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시하였다.

재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무역학전공에 대한 의견은 점수에 따라 전공을 선택함으로 학생들

의 미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4년 동안 무역학을 전공하면서 학생들의 눈높이가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취업처를 너무 높게 설정해 놓고 있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재학시절에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자격증 교과목과 다양한 실습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졸업생들의 경우는 취업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해외영업을 하려면 어학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조사 및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ICT지식으로 엑셀 등 통계분야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졸업생들도 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론보다는 현장중심의 교과목이 실제업무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87%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무역학 전공의 교과목은 현장실습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적합한 융복합 교과과정의 개발 필요여부에 대하여는 78%이상인 현 시대에 적합한 신기술을 연계한 전공 교과과정 개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등 융복합 교과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은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은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교과과정 외에 전공과 관련하여 추가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과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전공과목의 개발과 전공심화 과목 필요, 실무관련 체험 과목 심화, 저학년 무역시뮬레이션 과목 개발, 터미널(항구)관련 물류운송과목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현재 대학에서 개설되어 학습하고 있는 무역학 교과과정과 연계한 해외영업 직무인 해외시장조사, 해외영업 상품분석, 해외잠재고객 발굴, 해외고객 협상, 국제계약 체결, 해외영업 계약이행관리, 해외 클레임 처리, 해외고객(바이어) 관리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거의 모든 기업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해외영업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해외시장조사 항목은 60%이상인 중요하다고 하였다. 해외영업 상품분석과 해외잠재고객 발굴도 50%이상인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현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대학이 학문 중심적인 인재공급에 치중되어 있는 형태가 많으므로 현장중심의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보다 종합적인 실무지식과 경험과 실무능력을 구비한 인재들로 양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인력패러다임의 전환에서 미래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는 종합적이고, 사업화, 의사소통 등의 역량이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FGI분석 결과에서도 선행연구자들의 맥락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 및 전문가들은 미래에 필요한 인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복잡한 문제를 찾아내고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은 숙련되고 훈련된 인재라고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3자의 시선으로 완성시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만들어 가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기업들은 요구에 부응하는 부분이다.

산업체 및 전문가들은 대내외 무역환경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무역의 신성장 동력을 개척할 수 있는 무역인재는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 라는 질문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창의성, 글로벌 시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인재라고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무역인턴십 프로그램을 비롯한 해외현장 체험과 통상실습, 무역시뮬레이션, 꾸준한 독서를 통하여 일반적인 사고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융합된 교과목을 바탕으로 학습하고 훈련된 인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융합형 무역인재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이겨낼 한국무역의 가장 큰 경쟁력이

무역인력이 되는 것이다. 융복합된 무역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학협력이 충실하게 진행되면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4학년 학생들은 이론중심 교육 보다는 학과 연계 업체를 통해 실습위주 교육이 절실하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규 교과과정에 캡스톤디자인, 액션러닝, PBL(프로젝트기반 수업), 팀티칭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융복합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재학생과 졸업생,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역학과의 나아갈 방향과 교과과정의 개편, 교수자의 수업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이 시대에 맞춘 인재를 양성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교육정책당국에서도 교과과정 개편, 현장실습, 인턴십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무역학전공은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많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연구는 전무하므로 설문조사와 FGI방법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표본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업체와 무역학과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일부대학과 수도권 업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결과의 대표성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연구의 한계라는 점을 밝힌다. 향후에서 전국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무역학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무역인력양성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References

- Ahn, Duk-Gun (2017), "Academic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Its Policy Contribution", *International Area Studies*, 26(2), 1-14.
- Cho, Nan-Shim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ducation", *Education Criticism*, 39, 330-347.

- Cho, Sang-Si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uture Education Challenges", *Media and Education*, 6(2), 152-185.
- Chung, Yong-Kyun (2009), "The Academic Connection and Dynamic Evolu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Electronic Trade in the Perspectives of Lakatos'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 and Kuhn's Theory Choice Model", *Korea Trade Review*, 34(3), 221-251.
- Hahn, Jaephil(2005),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iculum of Law School, The Univ. of Nottingham & Foreign Trade Dept. of Korean Universities -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Academic Roots of International Commerce", *KOREA INTERNATIONAL COMMERCIAL REVIEW*, 20(1), 257-283
- Han, Joo-Sub(1998), "Trade department should be reorganized as university unit",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research*, Chung Ang University, 5, 1-9
- Han, Young-Su (2003.12), "Status and Improvement of Trade Personnel Training",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Proceedings*, 51-61.
- Hong, Seong-kyu (2004), "A Plan to Promote the Identity of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through Analyzing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Education in Japanese Universities", *KOREA INTERNATIONAL COMMERCIAL REVIEW*, 19(3), 323-348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2017.9.26.), "Survey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Trade Industry", *Trade Brief*, 27, 1-8.
- Ji, Sung-Pyo (1999), "A Study on the Disciplinary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Commerce (so-called 'Kukje Tongsang') and International Trade(so-called Muyeok) in Korea", *International Trade Research*, 4(2), 183-207.
- Jung, Hong-Joo (2011), "A Consideration on the Accreditation System of Foreign Trade Education - Focusing on Cases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 *Korea Trade Review*, 36(3), 221-243.
- Keun, Yung (2004),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ollege Trade Practicum Education - Focused on Kyungsoong University", *Kyungsoong University Industrial Development Institute*, 20(1)
- Kim, Hag-Min and Ho-Hyung Lee (2009), "Career Path Analysis and Job Commi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ofessionals", *Korea Trade Review*, 34(4), 101-123.
- Kim, Jai-Sik (2012), "Job Posting Trends and Preparing Next Generation for International Trade Education", *Korea Trade Review*, 37(5), 1-27
- Kim, Wuen-bae (2005), "The Future Way of The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s Curriculum and Its Studies", *KOREA INTERNATIONAL COMMERCIAL REVIEW*, 20(1), 237-255.
- Kim, Wuen-bae and Byoung-boo You (2006),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Trade Education of Korea and Japan in the View of International Commerce", *KOREA INTERNATIONAL COMMERCIAL REVIEW*, 21(4), 3-22.
- Kim, Hag-Min, Ho-Hyung Lee and Hong-Ki Lee (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Expectation-Performance Disconfirmation of International Trade Human Resources Capability", *Korea Trade Review*, 33(5), 203-228.
- Kim, Hag-Min and Yerim Lee (2016), "Strategic Tasks for Improving Convergence and Consilience of International Trade Human Resources", *Journal of Trade Scholars*, 2016(6) 241-263.
- Kim, Ji-Yong and Sung-Bae Kang (2016),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Fruition of Academic Advising Curriculum for Freshmen Class International Trade Major",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2(4), 575-586.
- KITA IIT (2016), "Korea Trade harmonized with Global Economy with Advanced Structure: Value7 +

- Strategy for Creating Trade Value”, *KITA IIT*.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18.10.18.), “Export Industry Trade Manpower Demand Survey”,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Trade Brief*, 21, 1-6.
- KOTRA (2016), “High-tech Export Competitiveness Opening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Global Strategy Report*, 16-010.
- La, Kong-Woo (2011), “A Study for Redefining Trade Training Courses and Academic Classification”, *Korea Trade Review*, 36(1), 249-273
- Lee, Byung-Mun, Hee-Jin Jeong and Kwang-So Park (2017), “An Influ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International Trade and Countermeasure Strategies to Promote Export in Korea”, *Korea Trade Review*, 42(3), 1-24.
- Lee, Sung-Gi (2016), “Studies on Intellectual Property Prospects: Analysis on Linkage of IP Information : Patent and Industrial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Multi-faceted Linkage of Patent Information”, *Issue&Focus on IP*, Korea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 Lee, Ho-Gun (2018), “A Study on the Confrontation Plan for Trade Education in Universities against Paradigm Shif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Business Studies*, 19(1), 187-202.
- Lee, Ho-Hyung (2015), “A Study of Trade Experts Incubating in University and the SME Export Performance”,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7(2), 307-327.
- Lee, Ho-Hyung (2018), “A Study on Action Learning Design and Effectiveness in Trade Educati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20(4), 411-430.
- Lee, Ho-Hyung and Gun-Woo Yang (2013.5),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riendly Trade Cases Operation Example”,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Spring Conference and Policy Seminar*, 177-189.
- Lee, Sang-Jin and Hyung-Cheol Kim (2013),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ducation in University for Cultivation of e-Trade Professional Manpower”,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14(2), 151-168.
-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18), “Announcement of 2018 Industrial and Resource Ministr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lan”, MCIE
- Moon, Byung-ki(2017), “Analysis of the export trend and competitiveness of the new growth indust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RADE FOCUS*.
- Park, Kwang So and Kwang-Hyun Yu (2008), “A Study on a Direction of Modification of the Trade and International Business Curriculum for Global Trade Expert”,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37, 329-360
- Yoon, Chung-Weon and Zuan-Kuo Liu (2008), “A Study on the Status and Necessary Measures to Reform the Curriculum of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in Korean Universities”, *KOREA INTERNATIONAL COMMERCIAL REVIEW*, 23(3), 157-183
- Yoon, Chung-Weon (2004), “A Study on the Problems and Counter plans of Korean Universities for Cultivating Foreign Trade Specialists”, *Korea Trade Review*, 29(3), 5-34